



자연치아 보존

# 무조건 임플란트? 자연치아 살리는게 우선

구강은 먹고 마시는 소화기관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구강 위생이 철저하지 않으면 세균이 서식하는데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 특히 치아는 세균 등의 이물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세균에 의해 치은(잇몸) 염증이 발생해 출혈이 되고 더 나가 치주염(풍치)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충치(치아우식증)가 발생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백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건강한 자연치아를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저한 구강 위생관리와 주기적인 치과 치료는 치아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며, 진료비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충치(치아 우식증) 등에 의해 치통 등이 유발되고 염증이 생긴 경우 발치를 우선 고려해서는 안되고 가능한 신경치료해 치아를 살리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된다.

치아를 삭제하지 않는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임플란트 무조건 신봉은 삼가야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됨에 따라 환자들의 경우, 자연치를 보존하려는 의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환자 자신이 치과의사에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치과의사는 신경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자연치를 보존하려는 노력 대신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임플란트가 상실치에 대한 크라운 브릿지의 대체 치료로 대두됐을 뿐 아니라 이후 불량한 치아에 있어 신경치료를 대신하는 옵션으로써 임플란트가 제시될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후가 불량한 치아의 치료로 임플란트를 적용하는 데 대한 기준은 아직 예매도 호하며, 자연치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



오원만 전남대 치과병원장이 임플란트를 희망하는 환자의 치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과도한 치아 삭제는 오히려 수명 단축

## 불소로 충치 예방... 사랑니 이식하기도

◇치아 삭제 최소화해야 =아말감 등을 수복하기 위해서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치아 수명의 단축을 초래한다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치과 전반의 분야에서 최소한의 침습을 추구하는 최소침습적치료가 제시되고 있다.

복합레진과 접착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적극적인 최소침습적치료가 가능하다. 초기 충치시 접착수복을 활용해 치질의 삭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치아를 삭제하지 않는 치료'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불소에 의해 초기 충치를 재광화해 치질과 치아의 수명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치료의 개념도 재조명되고 있다.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속 가공의치(크라운 브릿지)-국소의치(부분 틀니)-총의치(완전 틀니)로 이어지는 보철 사이클에서 벗어나 결손치에 인접한 건전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인접

할 것인가?' 혹은 '예후가 불량한 자연치를 근관치료를 통해 보존할 것인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치아의 보철 수복의 예후, 골의 질, 심미적 요구, 비용적 측면, 환자 개인의 전신 상태, 각각의 시술에 따르는 부작용과 환자의 선호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는 결손치 치료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되지만 치료 여지가 남아있는 자연치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치아가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한 근관치료 혹은 재근관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한 치주 질환과 같은 다른 병적 요인이나 위 협이 있는 경우, 근관치료를 쓰는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발치를 고려할 수 있다.

◇유용한 자가치아이식(trans-plantation) = 자가치아이식이란 본

인의 치아를 동일 구강 내의 어떤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술식을 말한다. 통상 보존이 불가능한 대구치 경우, 그 치아를 발치하고 가능한 고 있지 않은 사랑니를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

자가치아이식에는 본래의 이식 형태 외에 외과적으로 정출시키는 술식이 있으며 신경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발거해 구강 밖에서 치료한 후 다시 이식하는 의도적재치술도 있어 각 증례에 따라 술식을 달리할 수 있다.

자가치아이식 치료의 흐름을 살펴보면, 치근단이 완성된 치아에서는 그 치아의 발치와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수증부 치아와 이식할 치아를 뽑고, 이식 치아를 수증부에 이식한다. 시술 2주 후에 근관 치료를 개시하고, 수개월 후 치유를 확인해 크라운을 수복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치근단이 미완성 된 치아에서는 근관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도 치근의 발육

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

자가치아이식은 이미 10년 이상의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치료의 예후는 매우 좋다. 특히 젊은 연령의 환자에서 미성숙 치근단을 가지는 치아의 이식은 에나멜질이나 치수의 보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 말에 '신체 발부 수지부도'라 했듯이 치아도 인체의 일부이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치주염이 심하거나 신경치료가 불가능해 예후가 불량한 치아라도 포기하려는 자세는 좋지 못하며, 자가 치아를 보존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인공치나 보철물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신체의 일부인 치아보다 좋을 수는 없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장 오원만)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병원,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도약

## 영브리스톨대·독라이프치히대와 MOU

전남대병원(원장·송은규·사진 앞줄 오른쪽)이 최근 유럽의 우수대학과 학술 및 연구 교류 협정을 맺으며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사진)

송은규 원장은 최근 전남대 김윤수 총장과 함께 영국을 방문, 연구와 교육역량에서 세계 50위권을 다투는 영국 브리스톨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stol)와 학술 및 연구 교류 협정을 맺었다. 또 송 원장은 602년 전통의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공동연구와 학생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의 브리스톨대학교는 1909년 설립돼 영국 대학으로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녔으나 학문 간 융복합이 뛰어나 1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단기간에 뛰어난 연구성과를 거둬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브리스톨대학 내 의과학연구소가 신경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수준을 자랑함에 따라 전남대병원 연구성과를 거둬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브리스톨대학 내 의과학연구소가 신경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수준을 자랑함에 따라 전남대병원 연구성과를 거둬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또한 이 대학 연구진을 초청해 의과학 연구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교수 및 학생, 연구진들의 교류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브리스톨대학 내에 전남대 의과학연구소 실험실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송 원장과 함께 라이프치히대학교와 교류의 물꼬를 튼 프랭크 엠리크(Frank Emmrich)교수는 현재 프라운호퍼 세포치료및면역연구소와 라이프치히대학 재생의학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다.

과거 동독 시절 저명한 학자이면서도 동독의 민주화운동에 관여해 1년 6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다가 서독으로 추방되기도 했던 엠리크 교수는 광주민주화운동과 전남대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번 교류협정이 가능하도록 한 주역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아이안과, '크리스마스에 눈이 보이면...'

시력교정수술비 10% 의료봉사에 활용

광주 아이안과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시력교정 수술비의 10%를 모아 의료봉사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맞이 나눔행사를 진행하는 광주 아이안과(대표원장 윤정현)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보이면...'이란 주제로 행사를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라식 및 라섹 환자들의 수술비 10%를 적립, 기금을 조성해 '2012 아이안과 메스 의료봉사' 진행비 및 난민돕기 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또한 이 기간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부터 헌안경도 기부 받을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메스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로 현재 미얀마 군부독재의 정치적 억압과 가난을 피해 국경을 넘어 온 약 20만여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은 "매소 난민들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 1만8000명의 아이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1명의 수술로 인한 기부금액이면 1명의 환자가 백내장 수술로 다시 빛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항암제 내성진단시스템 개발' 모색

## 조선대, 내일 의성관 5층 김동국홀

기초의과학연구소(MRC)에 선정돼 암 및 미생물 내성의 분자기전을 규명하고 있는 조선대 내성세포연구센터(센터장 최철희)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국내외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과 한국산업기술평화위원회(위원장 박용진)가 주최하고, 조선대 내성세포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332회 학·연·산 연구성과 교류회'가 '항암제 내성진단시스템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1시 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열린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항암요법의 최근동향(조선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박상근 교수) ▲3차원 조직배양 항암제 감수성 검사(3D-HDRA)(박정구(주)메타바이오 이사) ▲ABC transporter에 대한 약리학적 연구(최철희 조선대 내성세포연구센터센터장) ▲항암제 내성진단키트의 유호성 연구(이태범(재)고창북부자연소 선임연구원) ▲개인 맞춤형 항암제 내성 전문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송병호 광주테크노파크 사전로봇센터 책임연구원) 등 항암제 내성진단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7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조선대 내성세포연구센터는 정부로부터 9년에 걸쳐 60억원을 지원받아 암 및 미생물의 내성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암과 감염증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 매매

사업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육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60%)	용적율	478.73%(법정: 480%)
규모	지하0층 지상9층	최고높이	55.50m
건축면적	1,435.47㎡(434.23평)	건축연면적	11,543.18㎡(3,491.81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평	층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워터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층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

#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 현대공인중개사

####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일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 준주거지역 (병원, 사무,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산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품양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원
-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규모>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